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	인도자
※ 예배기원	.....	인도자
※ 경배찬송	..... 25장(면류관 벗어서).....	다 같이
※ 교독문	..... 17(시편 29편).....	다 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 286장(주 예수님 내 맘에오사).....	다 같이
예배기도	..... 1부 차소라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	찬양대
이달의찬양	..... “평화의 기도”.....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	다 같이
*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혜를 주옵소서. * 작정밤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요한복음4:11-15.....	신혜원권사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영혼의 목마름 > 최세열목사	
기도	.....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 526장(목마른 자들아).....	다 같이
봉헌	..... (1 구역).....	다 같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성찬식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은이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	최세열목사
※ 축복송	.....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토)
인도 / 최세열목사	작정밤기도회 기간 중에는 저녁 8시에 모입니다. * 기간 : 6월 30일(월) - 7월 4일(금) * 장소 : 종합교육실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마태복음강해)	금요기도회
찬양 / 다함께			
기도 / 이영관권사		작정밤기도회로 모입니다	
본문 / 딘전 3:14-16			
말씀 / 최세열목사			
바울 목회자 7스피릿			
제1과 목적이 분명한 목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음주 기도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1부 선우명환집사
	헌금위원	6월 김대봉 이영란 김종천 박현순	2부 박홍만장로
		7월 김기희 신궁남 허웅 김귀례	1부 말은이
		성경봉독	2부 김애자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B	다음주 에스더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현신찬양	금주	1 구역	류종란권사
		다음주	2 구역

### 영혼의 목마름 / 요한복음 4:11-15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 1. 우리는 모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한 목마름도 있지만 오히려 넘치는 중에도 목이 마르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본질에 대한 목마름입니다(암8:11).

아모스의 지적대로 있음과 소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말라합니다.

1)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입니다. 이미 다섯 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야곱의 우물에 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13-15).

2)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목말라 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언제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려고 돌무화과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본질적인 영적갈증이 해결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 권력과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3장에 는 바리새인이자 유대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깊은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가르쳐 주셨고, 그는 영적갈증을 해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 먹고 마시지만 본질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 마치 꿈속에서 먹고 마신 것처럼 여전히 곤비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사29:8).

결국 인생의 목마름은 본질적인 목마름, 곧 영적 충만함에 대한 갈증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 2.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영적갈증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로 만납니다. 두 번째는 물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주여, Sir)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속에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문과 대답,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모든 인생의 갈증들이 사라지고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으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구세주로 만날 때 인생의 갈증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3.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임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심정으로(대상4:10) 영적 갈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강림후 넷째 주일(6월 29일)

**제 27 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사도행전 16장 6-7절)**  
(함께 읽을 말씀 : 예레미야 23장 16-20절, 마가복음 8장 31-34절)

#### 말씀묵상

1.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에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 가면 커 갈수록 "아니"라고 말하며 거절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손주 녀석 때문에 자꾸 일이 터집니다. 소파에 기어 올라가서는 모서리에 아슬아슬 걸터 앉았다가 뒤로 떨어지는데, 잘못하면 그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맙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요. 그런데 그냥 부드러운 말로 "안 돼"라고 말하면, 짓궂은 표정으로 능글맞게 씩 웃고는 또다시 기어 올라갑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응급실로 달려갈 정도로 혼쫓이 났는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녀석이 "아니"라고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더 커서 말이 통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더 커도 "아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이 들수록 "아니"라는 소리에 쉽게 흥분하고 빨리 노여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란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신앙이란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기기에 성령이 가로막았다는 말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기기에 거듭 예수님의 영이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말씀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거쳐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대역사의 거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 전파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성령이 막은 것입니다. 왜 무슨 사정으로 그 길이 막혔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은 그것을 성령이 막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지나쳐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3. 바울은 성령께서 가라 했을 때에도 순종했지만, 또한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을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막는다면, 쉽게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에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투옥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 길이 영광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치욕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다만 성령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은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2. 예배 후에 안수집사모임이 있습니다(오후1시 당회실)
3. 성령충만을 위한 작정밤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열립니다.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4. 어린이교회학교는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 교육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매주일에 이루어집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노회소식
  - 경기노회 남부신도회 헌신예배가 7월 6일(주일) 오후 4시30분 열린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 경기노회 평화통일위원회의 평화통일 강연회가 7월3일(목) 오전10:30에 성남 주민교회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박윤희 김선주 원혜경 강은순 김대봉 안해숙 김기수 신혜영 김영란 안진영 강진숙 박지영 김애자 박경자 정선례 최세열 조성순 윤종원 강국화 김용선
- 감사헌금 : 김애자 김선주 원혜경 박정일 강진숙 양희임 김지환 김기수 신혜영 김한순 김병진 김동현 이종춘 심문자 무명2 (일천번제)김동현 (생일) 오복실 박주한
- 건축헌금 : 김선주 원혜경 윤종원 김애자 안해숙 루디아희
- 비전씨앗 : 배영인 김예진 김승호 나인원 나인애 김태라 박주한 양석임 안채빈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박홍만	3	10,000	10		7	강은순	이영선	김숙희	7	13,000	90	박정미
2	정정희	김한순	정정희	3	10,000	20		8	김순님	오복실	정숙자	6	30,000	80	오복실
3	이준호	황경숙	신공님	3	20,000	200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김미연	3	16,000	200	김선자
4	김기희	최경선	임애경	5	17,000			10	장영분	노순영	박현순	5	21,000	75	장영분
5	이문순	원혜경	교 회	3	13,000		윤종원	계				41	162,000	845	
6	류종란	김애자	교 회	3	12,000	250	정순님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북 아프리카의 엘 알라맹(El Alamein)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 알라맹을 지키고 있던 영국군의 병력과 독일군의 병력은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이 모두 다 사막에서의 전투를 수행하는 중에 식수가 고갈되어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전통적인 자신들의 방식대로 물을 발견하고서는 전지까지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곳에 바닷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파이프의 이상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가까운 식수를 허비하기 보다는 이렇게 하여 바닷물로 물이 새는지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정찰을 나섰던 독일 병사들에 의해 이 파이프라인이 발견되어졌고, 이 사실은 즉시 독일 진영에 알려져 전 병력이 달콤한 물을 기대하며 곡괭이로 파이프 중간을 끊어 내었습니다. 펄펄 쏟아지는 물을 본 순간 앞뒤 가릴 것 없이 장. 사병 모두 물을 들이켰다. 얼마나 급하고 정신이 없었던지 이들은 얼마 안 있어서 통증이 오기까지는 그것이 소금물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의 갈증보다 더 심한 고통에 못 이겨 마침내 항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갈증은 이렇게 참기 힘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더 아프게 느껴야 할 갈증은 이렇게 육적인 갈증보다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갈증을 느껴야 찾을 수 있는 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갈망함으로써 찾을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고는 몸부림칠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게 찾는 은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26 2014.6.29.

**6월 작정밤 기도회 안내**

오순절인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열리는 성령충만 작정밤기도회는 교회가 성령을 배우고, 다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는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이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교회 출생 주일을 공식선언한 대사건의 날인 것처럼, 오늘의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 \* 일시 : 2014.6.30(월) - 7.4(금) 매일 저녁 8시
- \* 장소 : 1층 종합교육실
- \* 주제 : 성령충만으로 교회를 세우라
- \* 주제말씀 : 사도행전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 \* 말 씀  
 첫째 날- 진리의 성령(말씀훈련) - 요한복음 14:23-27  
 둘째 날- 간구의 성령(기도훈련) - 유다서 17-21  
 셋째 날- 거룩의 성령(생활훈련) - 로마서 8:8-17  
 넷째 날- 봉사의 성령(봉사훈련) - 고린도전서 12:1-12  
 다섯째 날 -전도의 성령(전도훈련) - 사도행전 21:36-41

**새가족 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되신 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주근희성도님(영통구 원천동 52-3) / 에스더회
- \* 우기남성도님(영통구 동수원로 432 4동 1011(동남아파트) / 한나회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